

임실N치즈축제에 놀러오세요

홍보 플래시몹 행사... 28일 한옥마을서 열려

“맛있는 치즈~~, 웃음꽃 피자~~, 동화속 치즈나라 축제에 놀러 오세요~” 임실군이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축제이자, 대표축제인 2019 임실N치즈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색적인 홍보를 선보이면서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높이며 축제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축제 홍보물을 배부하는 한편 신명나는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올해 첫 플래시몹을 선보였으며, 현장에서는 20여명의 유행곡 의상을 착용한 플래시몹단이 많은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흥겨운 음악과 댄스를 펼쳐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플래시몹 후에는 스카이라드와 순천만국가정원 주요 지점을 순

회하면서 축제 리플릿과 기념품을 나누어주는 등 플래시몹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군은 오는 2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올해 마지막 플래시몹을 펼칠 예정으로 천만송이 국화와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치즈축제에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이 방문하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군은 전국 유일의 치즈를 테마로 한 임실N치즈축제의 차별성을 적극 부각하며 올해 치즈축제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군은 2019 임실N치즈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라디오 광고를 시작으로 SNS, TV광고, 지면광고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축제 홍보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특히, 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현지에서는 대도시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9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맛있는 치즈~ 웃음꽃피자’를 슬로건으로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은 작년보다 한층 더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맛과 멋,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하는 축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치즈를 활용한 다양한 치즈 프로그램은 물론 천만송이 국화와 청정 임실지역에서 자란 압소한우, 지역 향토음식 등을 앞세워 맛과 멋,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하는 축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국화꽃 향기가 가득한 치즈축제장에 많이들 오셔서 청정지역에서 자란 압소 한우고기도 맛있게 드시고, 임실치즈도 저렴하게 사 가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치즈&향토먹거리 80여종 밥상 차린다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 선정 향토음식 품평회 가져

임실군이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19임실N치즈축제’에 무려 80여종에 달하는 풍성한 지역먹거리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군은 읍면별 특색있는 향토음식 먹거리로 주메뉴 19종, 부메뉴 60여종을 최종 선정, 임실N치즈축제 때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한다.

지난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맛집과 생활개선회, 기타 단체 등이 참여한 품평회는 흑염소탕, 소머리국밥 등 친숙한 음식부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슬기탕, 순대국밥과 치즈를 활용한 치즈수수부꾸미, 치즈다슬기전 등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였다.

군은 성공적인 먹거리장터 운영을 위하여 23일 심민 군수를 비롯하여, 생활개선회, 맛집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실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먹거리장터 음식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는 향토음식 먹거리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먹거리장터에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실 대표 맛집들이 축제장은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한층 높다.

품평회에서는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과 영업자 준수사항, 친절교육 등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향토음식 발굴에 적극 지원해 입실 고유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으로 관광 상품화 나간다는 계획이다.

품평회에 참석한 심민 임실군수는 “입실 고유의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지역 음식의 우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음식의 중요성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토음식 개발 가치가 높은 만큼 새로운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최근 남원 예가탑길 일원에서 500여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공동체 의식함양에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인성관 등 자원봉사자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배움과 실천의 기회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휴먼예방건강증진지원단, 남원시여성의용소방대 등 지역 유관기관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학교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나무공예, 스텐실, 비누 만들기, 승마체험, 압화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또한 연별!리액션, 휴먼예방캠페인, 심폐소생술, 자살예방캠페인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박람회와 연계해 진행했다.

양경남 봉사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고 청소년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소스, 대중 수출무역길 전망 밝아

중국 흑룡강성 기업인협회 회장단 순창고추장민속마을 방문

순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소스 분야의 대중 수출무역길 전망이 밝아질 전망이다. 군은 23일 중국 흑룡강성 기업인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순창고추장과 소스 수입을 위해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단은 군의 확대속에 고추장민속마을의 생산라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고추장과 소스 관련 무역상담을 마쳤다.

이번 방문은 흑룡강성 기업인 협회 소속 회사들이 제품수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순창군이 포함되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번 방문단 중 실제 음식점 프랜차이즈와 식품회사 회장이 직접 방문해 순창 고추장과 소스 수출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순창군 노후대 부군수도 직접 방문단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면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방문단은 공장형 고추장이 아닌 전통방식 그대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 고추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



23일 중국 흑룡강성 기업인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순창고추장과 소스 수입을 위해 순창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했다.

며, 중국내 고급 식재료로 전통고추장을 프리미엄 고추장으로 중국내 유통시킬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군은 지난해 개발한 순창 소스 3종과 올해 순창세계개발소스박람회 에서 선보일 ‘오라차차 소스’도 소개하며, 방문단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특히 오라차차 소스는 유산균으로 발효한 고추발효물을 사용한 한국형 핫소스로, 매운 음식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다문화가족 농촌체험관광 지원

13세대 40명 혼불문화관·산양치즈 등 방문

남원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농촌 활력사업의 일환인 누비고 관광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13세대 40명을 초청해 농촌문화와 공동체 탐방기회를 가졌다.

이번 문화탐방은 농촌에 거주하며 바쁜 농사일로 여가가 없는 다문화가족들에게 남원의 역사문화와 농촌 특성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농촌자원·경관을 활용한 도농교류와 전통문화를 살려 마을공동체로 이어 가는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에 나선 다문화 가족들은 혼불문화관, 노봉마을물박물관, 황산대첩비, 산양치즈 등 농촌체험과, 달오름마을 공동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관광해설사와 마을이장의 진행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았다.

남원시의 누비고 관광프로그램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남원지역 여행프로

램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누비고(Go) 관광상품 등록을 지난 2018년 4월에 마쳤으며,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친절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농촌현장 활동가등 20명 대상으로 관광서비스교육을 지난 5월 1개월 동안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생 농업농촌 공부프로그램, 누비고농촌관광, 기업인 농촌힐링, 귀농귀촌인 농촌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배세근 농촌활력과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촌문화탐방 기회를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www.jjmaeil.com

순창 보건지소, 만성질환 교육

순창군이 경로당 중심의 건강증진 교육을 추진하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순창군 보건지소에서는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지소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 순진료사업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기능 강화 등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수행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같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교통통신의 발달,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 증가 등으로 보건지소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같은 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프로그램은 9월초부터 관내 10개 보건지소에서 주1회씩 오전에는 진료와 예방접종, 각종 보건상담 등을 하고, 오후에는 공공보건지소 1명, 지소보 건인력 2명 등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 건강증진교육과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4개 경로당에서 28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교육을 마쳤다.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예방, 가을철발열성 질환, 벌쏘임시 대처방안, 치매예방, 올바른 약물복용 및 오남용교육 등과 간단한 건강체조도 병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